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1.04.16. (금) 10:00~12:0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자(총 14명 중 10명 참석)
 가. 교원대표 : 박상도, 김형종
 나. 직원대표 : 조현미, 이혜숙
 다. 조교대표 : 유황비
 라. 학생대표 : 류수경, 정수빈
 마. 동　　문 : 최형심, 이귀우
 바. 외　　부 : 김태현
4. 불참자 : 한승준, 김종현, 민병걸(교원), 백성기(외부)
5.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6. 자문 안건
 가.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결산(안)
7. 심의 안건
 가.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나.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1.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 의장 : 정보보호학과 김형종 교수
○ 부의장 : 노동조합 조현미 지부장

2. 자문 안건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결산(안)

재무팀장이 2020학년도 교비회계 자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학교의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지속되고 있어 기부금, 대여금 수입의 감소 등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대학원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을 활성화하여 학교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학년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학생회와 등록금 반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2020학년도의 경우, 학기별로 검토한 후에 1학기에는 등록금의 7%, 2학기에는 등록금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한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2020학년도에 지출이 감소한 부분도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비대면 수업 지원을 위해 지출이 증가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2020학년도 결산 총액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여도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원이 남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므로 학생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다. 2020학년도에 총학생회와의 간담회에서 온라인 수업의 질 관리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비대면 강의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1학년도에는 보다 나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 지난 회의록에서 2021학년도에 학교 재정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무슨 의미인가.

-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여전히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인건비를 비롯한 다양한 항목의 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으며, 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인건비를 무조건 감축하는 것으로 재정구조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임금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 및 보완을 검토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지난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은 2021학년도에 임금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 논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음을 설명드리는 바이다.

○ 학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급여 동결을 지속하는 등 지출 감소를 위해 이미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 등이 제한되어 전체적으로 학교 재정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출을 감소하는 것보다는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임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는 구성원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인건비 감축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정 학과 또는 분야, 사업에 대한 발굴과 외부 사업비 수주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 대학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시급하다. 또한,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법인은 학교 재정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책임을 갖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우려가 되는 바이다. 학교 법인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검토하여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학교가 인식하고 있는 재정 위기에 대하여 학교 법인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가.

- 지난 법인이사회에 2021학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며 재정의 어려움과 더불어 학교가 현 상황에서 자구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몇 년 안에 학교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현실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학교 법인은 2020학년도에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회사 설립 등을 검토하여 방법을 찾고 있으며, 사무처에서 이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 지난 1월 회의에서도 오늘과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갔다. 제도 개선이나 수익구조 창출을 위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시도와 노력, 그리고 변화가 있었는가.

- 등록금 수입 외에 수입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재정지원사업이다. 매년 재정지원사업으로 일정 금액 이상 수입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수업의 질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2021학년도에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현실성이 보장되었으며, 혁신공유대학과 같은 교육부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서도 최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학교는 등록금 수입과 같은 고정적인 수입보다는 유동성이 있는 수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에도 일부 학과에 있어 수업을 주말에도 개설하여 직장인이 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체제를 변경하여 충원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면서 수입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제교류단의 경우에는 국제학생 유치와 국제 교육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에는 단기 어학 연수생의 규모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게 되면 이는 2021학년도 수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산학협력단 역시 학과와의 협업을 촉진하고자 허브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시설관재팀은 코로나19에 따른 임대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감소에 대응하고자 시험장소 대관, 드라마 촬영장소 제공 등을 통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달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방면으로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등록금 반환에 있어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등록금이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빈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의 질과는 별개로 2021학년도에도 학교가 학생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3. 심의 안건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

기획처장이 2021학년도 예술심리치료 연계융합전공 신설에 따른 학위명을 명시하고, 2022학년도 아트앤디자인스쿨 산하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 신설과 이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이 25명으로 신설되는데, 인원이 적지는 않은가.
- 미술 계열의 특성상 20명 단위로 분반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25명이면 충분히 학과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검토 후에 모집인원을 결정하였다.

○ 모집 총 정원이 증가함에 따른 교원 확보율의 문제는 없는가.
- 첨단 학과를 신설할 때에 데이터사이언스학과의 경우, 기존 학과 교원의 소속 변경과 신임교원 충원이 함께 이루어졌다.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의 경우에도 모두 신임교원으로 충원하기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 우선 시각디자인전공에서 일부 교원이 소속 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 신설에 있어 기존의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기술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예술적인 부분만을 취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4차산업, 인공지능의 시대에 기여하기 위한 첨단학과라면 기술적인 부분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첨단학과의 취지를 받아들이면서도 학과를 신설함에 있어 교원 및 학생에게 혼선이 없도록 학과에서 장기적으로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했는지 염려스럽다.
- 기존의 시각디자인전공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시각디자인 영역과 뉴미디어영역이 공존하고 있었다. 뉴미디어는 AR, VR과 관련된 실감 디자인 분야이다. 교육부가 지정한 첨단학과 신기술 분야에 실감 미디어 분야가 있어 첨단학과로 신청할 수 있었다. 또한, 아트앤디자인스쿨 편제 개편(안) 수립 시에도 보다 신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변경 전 : 뉴미디어전공)이 논의되고 있었다. 아트앤디자인스쿨 편제 개편(안)은 아트앤디자인스쿨 소속 교원의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제시된 모델이며, 대학 차원에서도 앞으로의 가능성과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우려하시는 내용 중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이 첨단인지, 그리고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관련 전공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은 아트앤디자인스쿨에 설치되는 전공으로 미래산업융합대학 소속 디지털미디어학과가 IT 기술과 같은 공학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에 비해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디지털미디어학과와는 다른 차별성을 확보할 것이며, 해당 학문 분야를 침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마쳤다.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을 위한 모집정원 조정 시, 디지털미디어학과와 정보보호학과는 모집정원 조정에 따른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자율전공학부의 경우에는 학부의 자체적인 결정이 아니라 외부적인 이유에 의한 결정으로 보인다. 자율전공학부 설립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정원의 조정을 해야 한다면, 그 타당성에 대하여 중도탈락률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객관적인 사전 조사가 선행되었어야 한다.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개혁의 시대에 모집정원을 조정하고 학제를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이는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납득을 시키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신설에 있어 반드시 IT 계열 학과만 연관 학과가 아니었으며 인문사회계열이나 수학계열과도 연관성이 있었으나, 디지털미디어학과와 정보보호학과가 학과 신설 논의 과정에서 모집정원 조정에 협조해준 덕분에 해당 학과에서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계열에서 모집정원을 조정하였다. 자율전공학부에서 모집정원을 조정한 것은 중도탈락률에 따른 지속적인 결손인원 발생 때문이다. 이에 자율전공학부 담당 행정부서와 학생회와 논의하였으며, 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모집정원의 일부를 조정하였다. 또한, 모집정원 조정 시 입학전형 계획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미 모집정원이 작은 자율전공학부 자연계열에서 모집정원을 감소하는 것은 입학전형 설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문사회계열의 정원을 우선 조정하였다.
  단, 첨단학과 신설이 매우 다급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연관 부서, 소속 학생회 및 학생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였으나, 교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에는 부족함이 있었으며, 추후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 이번에는 자율전공학부의 모집정원이 조정되었지만, 다음 차례는 어느 학과가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일을 추진할 때에는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교내 구성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모집정원의 조정 이전에 자율전공학부의 정원 감축 후 운영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모집정원 조정의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한 순서라고 판단된다.

○ 아트앤디자인스쿨학부 교원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떠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는가.

- 교육부에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의 신설을 신청할 때에 학부 4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교과목 개발은 완료된 바 있다. 현재 시각디자인전공 소속 일부 교원이 운영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트앤디자인스쿨 전체로 볼 때,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은 소속 교원의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발전 방향으로서 도출된 내용으로 모든 아트앤디자인스쿨 소속 교원이 동의하였으며, 몇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할 때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최근 교원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아트앤디자인스쿨 편제 개편(안)에서 첨단미디어디자인전공 신설만 승인되고, 기존의 미술대학 개편(안)이 무산된 것 같은데 경과가 어떻게 되는가.

- 상당 기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아트앤디자인스쿨 편제 개편(안)이었으나,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제기되어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트앤디자인스쿨 편제 개편(안)이 무산된 것은 아니며,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앞으로도 궁극적으로는 기존에 논의된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4. 심의 안건 -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경영기획팀장이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설명하다.

○ 개방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대학평의원회 의장(정보보호학과 김형종 교수)과 부의장(노동조합 조현미 지부장)을 개방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다.

5. 회의록 공개 범위 논의

○ 의장이 2021학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의원들이 승인하다.

6. 차기 회의 일정

○ 학칙 개정(안) 심의를 위하여 7~8월 경 차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의장이 12시 00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1년 4월 16일

의 장 김 형 종 (서명)

부의장 조 현 미 (서명)

평의원 박 상 도 (서명)

평의원 이 혜 숙 (서명)

평의원 유 황 비 (서명)

평의원 정 수 빈 (서명)

평의원 류 수 경 (서명)

평의원 최 형 심 (서명)

평의원 이 귀 우 (서명)

평의원 김 태 현 (서명)

간 사 하 성 호 (서명)